



김은연
한국대학교 언론인사범부
교수

미디어 속 여성 역할 제대로 찾기

— 미디어를 통해 본 여성 —

겁 없이 차에 탄 여성

2002년 5월 3일 한 방송사의 9시 뉴스는 "겁없이 탄다"라는 제목으로 카드 빔을 갇기 위해 6명의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사건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살인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살인자가 아닌 희생자 여성들이 '부주의했다'는 사실에 돌렸을 뿐만 아니라 '연쇄 살인' 저지른 범인들은 바로 이 같은 여성들—한 여성은 모르는 남자들이 술을 같이 하자고 권하면 거리낌없이 따라나서겠다고 말합니다. - 노렸다고 말합니다.' 라는 식의 멘트까지 곁들인 것이다.

겁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탄 '젊은 여성들'이 살인동기를 부여했다는 사실에 보도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미디어 속에 나타난 여성은 이처럼 남성의 시각에 맞춰 있다. 인터넷 등에서 여성 아이디 사용자들이 겪는 수모도 만만치 않다. 미디어 속의 여성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안의 주체가 여성인 경우이다. 보도 분야에서 여성은 남성이 주체가 되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지면 또는 시간이 할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벌회장이 외화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자 그 부인이 현직 검찰총장 부인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

던 소위 '옷 로비' 사건은 사건의 비중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신문 방송의 톱 뉴스를 장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관련 여성당사자들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을 연일 신문과 방송은 주요 인사들의 부인들 간의 미묘한 관계를 대사 하나하나 까지 세심하게 보도하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는 뉴스,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에서 여성에 대해 고정적이거나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행위이다. 아버지는 잠옷 바람에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늘 행주치마를 입고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고정시켜 놓는 언어 이미지 등이 토론이나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전문 여성 MC마저도 남성주의적 시각의 발언을 하는 예가 있다.

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가? 먼저 뉴스의 '관습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 보자. 정보 전달자들은 스테레오 타입 stereotype (고정 관념) 과 클리셰 cliché (상투적인 용법), 즉 대부분의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박혀있는 고정 관념이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식처럼 이용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스테레오 타입이란 원래 18세기에 개발된 인쇄용 금속판이고 클리셰는 연판인쇄로 찍어낸 것을 일컬었다. '충격적인 보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몸살 앓는 고속도로' 등은 모두 클리셰에 속한다. 범죄자들은 항상 '잔인하고 사악한' 사람으로, 처형 당하기 직전의 죄수들은 늘 '참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군인은 모두 '용감' 해야 하고, 남성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부장' 이어야 하며 여성은 '아름답고 순종적이며 압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스테레오 타입 공식을 이용한 보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스테레오 타입이란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 것이다. 상투적인 표현은 고정 관념을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속 여성 역할과 문제

미디어에 나타나는 여성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여성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토록 인권침해적인 고정관념이 정보 전달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미디어 종사자들이 여론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종사자들이 인식을 바꾼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종사자 가운데 여성인력이 많다면 물론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질 것이다.

미디어 속 여성은 항상 남성의 시각에 맞춰 있다.



2000년부터 언론사에 여직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신문 방송사의 여직자 비율은 13% 정도이다. 90년 9.5%, 99년 10.1%에 비해 조금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참고-대만 38%, 독일 41%, 멕시코 25%, 미국 37%, 칠레 40%, 핀란드 49%) 이들은 또 소위 주요 부서 보다는 주변부서 등에 더 많이 배속돼 있거나 35세 이상 여성 언론인은 여성 언론인 전체의 27% (남자는 63%) 밖에는 안된다. 게다가 이들은 차별과 성희롱에도 시달리고 있음이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사회의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영상 프로그램 제작·배포' '대중매체 종사자의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이들을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통합방송법 개정시 성차별과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준 내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언론사의 여성고용 할당제, 언론인 성평등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펴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성(性)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TRPK**